

헤드라이트 (Headlight)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중에 짐을 나르기 위하여 구입한 SUV 가 한 대 있다. 오래된 자동차다 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한다. 공장에 가서 고치려니 돈이 많이 들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없는 실력을 총 동원해서 가끔 수리도 하는 자동차이다. 그러데 가장 큰 문제는 날이 저물면 헤드라이트(Headlight) 켜야 하는데 모든 것이 오해 되다 보니 불이 희미하다. 전구를 바꾸어 보았지만 여전히 어둡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다른 자동차들의 불빛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고민 끝에 전구를 LED로 바꾸고자 했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Amazon에서 비싸지 않은 LED 전구를 구입했다. 그리고 자동차에 전구를 바꾸어 설치했다. 날이 어두워져 결과를 보니 훨씬 나아졌지만 생각 같이 밝지는 않았다. 많이 실망했다. 앞 유리 부분을 더 깨끗이 닦아 내기도 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전구에 있지 않았다. 전구를 밝게 만들어 주는 헤드라이트 통 전체가 금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빛이 그 통 뒤를 반사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통이 갈라져 틈이 생겼으니 앞으로 나가는 빛이 밝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 전체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그대로 타다가 기회가 되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 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을 듣고 먹는다고 해도 만일 헤드라이트 통 전체가 금이 간 것과 같이 마음이 갈라져 있고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며 쪼개진 것과 같이 금이 가 있어 온통 받은 것이 물이 새는 것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많은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찬양 후에도 아직 큰 변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나님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나의 깊은 신앙생활과 은혜를 쏟아내는 갈라져 있는 곳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곳을 보수해서 온전하고 확실한 밝은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3-24절)라고 하셨다. 고치고 막고 새롭게 하는 때이다. 새해를 맞으며 또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그 때에 새로운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